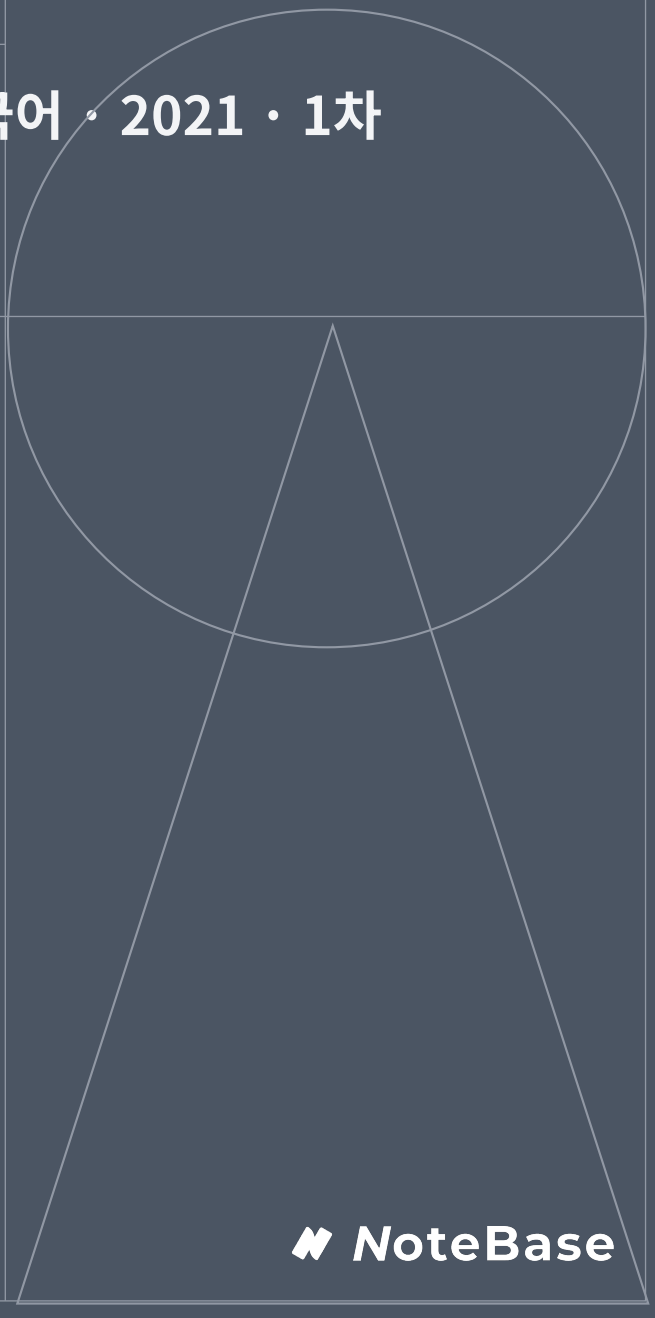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1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1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1 · 1차

문 1.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러한 음운 변동 유형들 중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① 끊어[끄너]
② 흙하고[흐카고]
③ 밤윷[밤뉻]
④ 숱하다[수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표면 발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체·탈락·축약·첨가 가운데 몇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이며,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다. 단순한 연음은 음운의 수나 종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으로 세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끊어[끄너]’에서는 겹받침 ㄶ의 ㅎ이 탈락하고 ㄴ이 다음 음절로 이어져 발음된다. 연음은 별도의 음운 변동 유형이 아니므로 탈락 한 가지만 나타난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탈락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② O — ‘흙하고[흐카고]’에서는 겹받침 ㄺ의 ㄹ이 탈락하고, 남은 ㄱ과 뒤의 ㅎ이 합쳐져 ㅋ으로 축약된다. 탈락과 축약의 두 유형이 나타난다.
③ O — ‘밤윷[밤뉻]’에서는 합성어의 경계에서 ㄴ이 첨가되고, ‘윷’의 받침 소리가 음절 끝에서 대표음으로 바뀐다. 첨가와 교체의 두 유형이 나타난다.
④ O — ‘숱하다[수타다]’에서는 ‘숱’의 받침 ㅌ이 음절 끝에서 대표음 ㄷ으로 교체된 뒤, ㄷ과 ㅎ이 합쳐져 ㅌ으로 축약된다. 교체와 축약의 두 유형이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ㄴ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되는 연음을 첨가나 교체로 잘못 세기 쉽다. 음운 자체가 새로 생기거나 다른 음운으로 바뀐 것이 아니므로 ①에는 ㅎ 탈락만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와 발음을 바로 비교하기보다 중간 발음 과정을 단계별로 적는다. 음운이 바뀌면 교체, 없어지면 탈락, 둘이 하나가 되면 축약, 새로 생기면 첨가로 판정하고, 단순한 연음은 유형의 수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끊어는 ㅎ 탈락만, 흙하고는 탈락+축약, 밤윷은 첨가+교체, 숱하다는 교체+축약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① 타고나다 - 통사적 합성어
② 붉돔 - 비통사적 합성어
③ 돌보다 - 통사적 합성어
④ 높푸르다 - 비통사적 합성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의 연결 방식이 문장의 일반적인 배열과 같은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사적 합성어는 두 어근이 문장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예를 들어 용언과 용언 사이에 연결 어미가 나타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문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용언의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다른 용언과 직접 결합하거나,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타고나다’는 ‘타-+-고+나-+-다’로 분석되며, 연결 어미 ‘-고’를 통해 두 용언이 문장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O — ‘붉돔’은 형용사 어간 ‘붉-’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 ‘돔’과 직접 결합하였다. 문장에서는 ‘붉은 돔’처럼 쓰이므로 ‘붉돔’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돌보다’는 용언의 어간 ‘돌-’과 ‘보-’가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올바르게는 ‘돌보다 -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O — ‘높푸르다’는 형용사 어간 ‘높-’과 ‘푸르-’가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하였다. 문장에서는 ‘높고 푸르다’처럼 연결 어미가 필요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돌보다’를 하나의 익숙한 동사로만 보면 결합 방식을 놓치기 쉽다. ‘돌-’과 ‘보-’ 사이에 문장에서 필요한 연결 어미가 없다는 점이 ③의 ‘통사적’이라는 판단을 틀리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어를 구성 요소로 나눈 뒤 이를 문장 속 구나 절로 풀어 본다. 풀어 쓸 때 필요한 연결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가 합성어에도 남아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이고, 그 어미가 빠진 채 어근끼리 직접 결합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암기 포인트

문장식 결합이면 통사적, 문장에서 필요한 어미를 생략한 어근 직접 결합이면 비통사적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과 ㉡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① ㉠ 그는 하는 시합마다 백이면 백 모두 승리했다.
㉡ 열 사람이 백 마디의 말을 한다.

② ㉠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③ ㉠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우리는 날이 밝는 대로 떠나기로 했다.

④ ㉠ 높이가 100미터인 바위산에 올라갔다.
㉡ 나무가 벌써 어른의 키 높이 정도로 자랐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같은 형태의 단어라도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는지, 다른 말을 꾸미는지,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지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사와 수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체언이다. 관형사는 뒤의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민다. 동사는 움직임이나 변화를,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 문항에서는 조사 결합 여부와 문장 속 기능을 함께 살펴 품사를 판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백'은 '백이면 백'처럼 수량 자체를 가리키는 수사이다. ㉡의 '백'은 뒤의 명사 '마디'를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두 단어의 품사가 같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은 수사, ㉡은 관형사'이다.

② X
㉠의 '오늘'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어떤 날을 가리키므로 명사이다. ㉡의 '오늘'은 '해야 할'을 시간적으로 꾸며 '이날에'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부사이다. '두 단어의 품사가 같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은 명사, ㉡은 부사'이다.

③ X
㉠의 '밝다'는 달의 밝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의 '밝는'은 날이 새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밝다'의 활용형이다. '두 단어의 품사가 같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은 형용사, ㉡은 동사'이다.

④ O
㉠의 '높이'는 조사 '가'와 결합하여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의 '높이'도 '어른의 키 높이'에서 높은 정도를 뜻하며, 뒤의 '정도'와 결합한 명사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명사이다.

오답 포인트

겉모양이 같은 단어를 언제나 같은 품사로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①의 '백'은 수사와 관형사, ②의 '오늘'은 명사와 부사, ③의 '밝다'는 형용사와 동사로 각각 기능이 달라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마다 조사와 결합하는지, 뒤의 체언을 꾸미는지, 용언이나 문장을 꾸미는지, 상태와 변화를 서술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같은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품사를 정하지 않고 문장 속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백': 수사·관형사, '오늘': 명사·부사, '밝다': 형용사·동사, '높이': 이 문항에서는 모두 명사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들[1] 「의존명사」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들[4] 「조사」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8]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①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었다.
② 거기 ㉡앉아서들 이야기하세요.
③ ㉢다들 떠나갔구나.
④ 나는 "㉡어서들 오세요."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들'의 쓰임을 의존 명사 '들', 복수의 주어를 나타내는 보조사 '들',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 '들'은 명사 뒤에서 둘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보조사 '들'은 체언·부사어·연결 어미 등의 뒤에 붙어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접미사 '-들'은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그 말 자체에 복수의 뜻을 더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공책, 신문, 지갑 들’의 ‘들’은 열거한 사물 전부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물을 가리키며, 명사 뒤에 쓰인 의존 명사 ㉠의 예이다.

② O
‘앉아서들’의 ‘들’은 연결 어미 ‘-아서’ 뒤에 붙어 이야기하는 주체가 여럿임을 나타내므로 보조사 ㉡의 예이다.

③ X
‘다들’의 ‘들’을 접미사 ㉢으로 본 부분이 틀렸다. ‘다’는 여기에서 부사이고, 그 뒤의 ‘들’은 떠나간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올바르게는 ㉡의 예이다.

④ O
‘어서들’의 ‘들’은 부사 ‘어서’ 뒤에서 오는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이고, ‘그들에게’의 ‘-들’은 대명사 ‘그’ 뒤에 붙어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다들’은 겉으로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가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아니므로 접미사 ‘-들’이 붙은 형태가 아니다. 부사 뒤에서 주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보조사 ‘들’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들’ 앞말의 품사와 기능을 함께 확인한다. 열거된 명사 뒤에서 사물들을 가리키면 의존 명사,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서 주어의 복수를 나타내면 보조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자체를 복수로 만들면 접미사이다.

암기 포인트

열거의 ‘들’은 의존 명사, 주어 복수의 ‘들’은 보조사, 명사·대명사 복수의 ‘-들’은 접미사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원칙대로 띄어쓰기를 할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어려운∨일∨하는∨사람을∨보면∨존경심마저∨생긴다.

② 그∨사람이∨떠난∨지∨사흘∨만에∨돌아왔다.

③ 저∨큰∨집∨한∨채∨살∨때까지∨열심히∨돈을∨벌었다.

④ 네∨말을∨들으니∨그럴∨법∨하다는∨생각이∨든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와 조사, 단위를 나타내는 말,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수 관형사 뒤에서 띄어 쓴다. '법하다'처럼 하나의 보조 용언으로 굳어진 말은 그 내부를 나누어 쓰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일'은 명사이고 '하는'은 동사 '하다'의 관형사형이므로 '어려운 일 하는 사람'처럼 띄어 쓴다. 보조사 '마저'는 앞말에 붙여 '존경심마저'로 쓴다.
② O — 어떤 일이 있은 뒤의 경과 시간을 나타내는 '지'와 일정 시간이 지난 뒤를 뜻하는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각각 '떠난 지', '사흘 만에'로 띄어 쓴다. 조사 '에'는 '만'에 붙인다.
③ O — '저 큰 집'은 각 단어를 띄어 쓰고, 수 관형사 '한'과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채'도 '한 채'로 띄어 쓴다. 의존 명사 '때'는 '살 때'로 띄며 조사 '까지'는 '때'에 붙인다.
④ X — 틀린 부분은 '법 하다는'이다. 가능성이나 그럴듯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는 '법하다'라는 한 단어이므로 '그럴 법하다는'으로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법'이 의존 명사처럼 보여 '법 하다'로 나누기 쉽지만, 이 문맥의 '법하다'는 하나의 보조 형용사이다. 따라서 '그럴'과 '법하다' 사이는 띄되 '법하다' 자체는 붙여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구별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이어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법하다'와 같은 보조 용언은 내부를 분리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떠난 지, 사흘 만에, 한 채, 살 때'는 띄어 쓰고, '존경심마저, 때까지, 법하다'는 붙여 쓴다.

NoteBase

문 6. 다음 단어의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올바른 것은?

① accessory: 악세사리 - juice: 쥬스

② window: 윈도 - concept: 콘셉트

③ robot: 로봇 - ad lib: 애드립

④ symposium: 심포지움 - flash: 플래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적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한 선지에 제시된 두 단어가 모두 올바르게 표기되어야 정답이 된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원어의 철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표기 원칙과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준 표기에 따라 적는다. 이 문항의 표준 표기는 액세서리(accessory), 주스(juice), 윈도(window), 콘셉트(concept), 로봇(robot), 애드리브(ad lib), 심포지엄(symposium), 플래시(flash)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악세사리'와 '쥬스'가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른 표기는 각각 '액세서리'와 '주스'이다.
② O — '윈도'와 '콘셉트'는 모두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다.
③ X — '로봇'은 올바르지만 '애드립'이 잘못되었다. ad lib의 올바른 표기는 '애드리브'이다.
④ X — '플래시'는 올바르지만 '심포지움'이 잘못되었다. symposium의 올바른 표기는 '심포지엄'이다.

오답 포인트

익숙한 발음이나 철자에 끌려 '악세사리', '쥬스', '애드립', '심포지움'을 표준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한 쌍 중 하나만 맞는 ③과 ④를 고르지 않도록 두 단어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마다 두 표기를 따로 판별한 뒤, 둘 다 표준 표기인 선지만 남긴다. 실제 발음에 익숙한 형태보다 사전에 등재된 표준 표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액세서리·주스 / 윈도·콘셉트 / 로봇·애드리브 / 심포지엄·플래시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고개 숙인 벼 이삭으로 누레진 들판.

② 만듦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③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닦았다.

④ 그이가 늦지나 않을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형, 연결 표현이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누레진'은 '누레지다'의 활용형이고, '만듦새'는 '만들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말이다. 앞 문장의 행동을 받아 '그렇게 하고 나서'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그러고 나서'를 쓴다. '-ㄹ는지'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이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누레진'은 '누레지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올바른 활용형이다. 벼가 익어 들판이 누렇게 된 모습을 나타낸다.
② O — '만듦새'는 물건을 만든 모양새를 뜻하는 말이다.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듬'이 아니라 '만듦'이므로 표기가 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그리고 나서'이다. 앞 문장의 행동을 이어 받아 '그렇게 하고 나서'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밥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이를 닦았다.'로 고쳐야 한다. 두 문장을 합치면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았다.'라고 할 수도 있다.
④ O — '않을는지'의 '-ㄹ는지'는 뒤의 판단과 관련된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올바른 어미이다. '않을런지'로 쓰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그리고'는 문장이나 말을 단순히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므로 뒤에 곧바로 '나서'를 붙여 '그렇게 하고 난 뒤'의 뜻을 만들 수 없다. 이 뜻에는 동사 '그러다'의 활용형인 '그러고'를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그렇게 하고 나서'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그러고 나서'를 쓰고, 두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이어 주면 '그리고'를 쓴다. 명사형 표기는 기본형의 어간과 명사형 어미 '-ㅁ'의 결합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듦’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① 철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기가 부족하다.

② 누구나 자기 현실을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③ 누구도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후보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④ 그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관형절·명사절·부사절·서술절을 찾아 안긴 절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긴 절은 다른 문장 속에서 관형어, 명사, 부사어, 서술어 등의 기능을 하는 절이다. 한 안긴 절 속에 또 다른 절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겉에 드러난 절뿐 아니라 그 내부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은 ‘용기’를 꾸미는 관형절이고, ‘용기가 부족하다’는 ‘철수는’의 서술어 구실을 하는 서술절이다. 따라서 안긴 절이 두 개이므로, 이 문장을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없는 문장’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있는 문장’이다.

② O
‘자기 현실을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는’은 의존 명사 ‘것’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이 밖에 별도의 안긴 절이 없으므로 안긴 절은 한 개뿐이며,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있는 문장이 아니다.

③ X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은 ‘후보자’를 꾸미는 관형절이고, 이 관형절을 포함한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후보자임’은 목적어 구실을 하는 명사절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없는 문장’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관형절을 포함한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다.

④ X
‘소리 없이’는 ‘소리가 없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생략된 부사절이고, 이를 포함한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은 ‘모습’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없는 문장’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부사절을 포함한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용기가 부족하다'를 단순한 주어와 서술어로만 보거나, ④의 '소리 없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생략되었다는 점을 놓치면 안긴 절을 하나씩만 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를 모두 찾고 각각에 대응하는 주어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절이 문장 안에서 관형어·명사·부사어·서술어 중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판별한다. 조사 생략과 절 속에 다시 들어간 절까지 확인하면 안긴 절의 수를 정확히 셀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서술어마다 주어를 찾고, 생략된 조사와 절 속의 절까지 센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의 '동창회에서'는 주어이지만,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의 '동창회에서'는 부사어이다.

② '물이 얼음이 되었다.'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얼음이'는 보어이고 '얼음으로'는 부사어이다.

③ '민주는 엄마와 진학 문제를 의논했다.'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엄마와 민주는 민하를 기다렸다.'의 '와'는 접속 조사이다.

④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의 '하고'와 '너는 성적이 누구하고 같으냐?'의 '하고'는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같은 형태의 조사가 문장 속 관계에 따라 주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접속 조사로 다르게 기능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격 조사는 체언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며,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의 '에서'도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다. 보격 조사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어를 만들고, 부사격 조사는 체언이 장소·상대·방향 등의 자격으로 서술어를 꾸미게 한다.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따라서 조사의 형태만 보지 않고, 앞말이 서술어와 맺는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에서는 단체인 '동창회'가 전달 행위의 주체이므로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다.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에서는 '동창회'가 일이 있었던 장소를 나타내므로 '에서'가 부사격 조사로 쓰인다.

② O — '물이 얼음이 되었다'의 '얼음이'는 '되었다'가 요구하는 보어이고,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얼음으로'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며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두 문장의 기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③ O — '민주는 엄마와 진학 문제를 의논했다'의 '엄마와'는 의논한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므로 '와'가 부사격 조사이다. '엄마와 민주는 민하를 기다렸다'에서는 '엄마'와 '민주'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므로 '와'가 접속 조사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두 문장의 '하고'가 '모두 부사격 조사'라는 설명이다. '배하고 사과하고 감'의 '하고'는 배·사과·감을 같은 자격으로 잇는 접속 조사이고, '누구하고 같으냐'의 '하고'만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올바르게는 앞 문장의 '하고'는 접속 조사이고 뒤 문장의 '하고'는 부사격 조사라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두 '하고'가 형태는 같다는 점이 함정이다. '하고' 뒤에 체언이 이어져 여러 대상을 나열하면 접속 조사이고, '같다'의 비교 대상을 나타내면 부사격 조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의 겉모양이 아니라 문장 속 기능을 판별한다. 행위의 주체이면 주격, '되다·아니다' 앞의 필수 성분이면 보격, 장소·상대·비교 대상 등으로 서술어를 꾸미면 부사격, 체언끼리 같은 자격으로 이으면 접속 조사이다.

암기 포인트

단체의 '에서'는 주격이 될 수 있고, 나열의 '하고'는 접속, 비교 상대의 '하고'는 부사격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①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
→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하는 것이다.

② 형사들은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 형사들은 그를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③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④ 그는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을 판별하고, 수정문이 실제로 그 성분을 보충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의 수이다. '간주하다'는 간주의 대상과 자격을, '복종하다'는 '~에'를, '지배하다'는 '~을/를'을, '넣다'는 넣는 대상과 장소를 요구한다. 필수 성분 보충은 빠진 성분을 덧붙이는 것이며, 서술어나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좋겠다'를 '하는 것이다'로 바꾼 것은 빠진 필수 문장 성분을 보충한 것이 아니라 서술어와 문장 구조를 바꾼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말한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른 수정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판단은 '필수 성분 보충의 예'가 아니라 '문장 구조를 바꾼 예'이다. 의도한 뜻은 '나는 오직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되는 것이다.'처럼 표현할 수 있다.

② O
'간주하다'는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간주하다'의 구조를 이루므로 간주의 대상이 필요하다. 원문에는 그 대상이 빠져 있으며, '그를'을 보충한 수정이 적절하다.

③ O
'복종하다'는 '자연에 복종하다'처럼 '~에' 성분을 요구하지만, '지배하다'는 '자연을 지배하다'처럼 목적어를 요구한다. '자연에'를 두 서술어에 공통으로 걸 수 없으므로 '자연을'을 보충한 수정이 적절하다.

④ O
'넣다'는 무엇을 어디에 넣는지를 나타내므로 목적어와 장소를 나타내는 성분이 필요하다. 원문에는 손을 넣는 장소가 빠져 있으며, '호주머니에'를 보충한 수정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수정문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의 기준은 수정 결과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빠진 필수 문장 성분을 보충했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서술어에 '누가, 무엇을, 무엇에, 무엇으로, 어디에'를 물어 필수 성분을 확인한 뒤, 수정문이 그 성분만 보충했는지를 살핀다. 서술어를 다른 말로 교체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었다면 자릿수에 따른 보충 사례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자릿수 오류의 수정은 서술어 교체가 아니라 빠진 필수 성분의 보충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작품은 김삿갓이 주인에게 대접을 받고서 쓴 시이다.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다리 소반에 죽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떠도네
주인장,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나는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이 좋다오.

① 가난한데도 죽이나마 대접하려는 주인의 인정이 따스하다.
② 감사를 전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③ 하늘과 떠도는 구름은 주인의 유유자적한 삶을 의미한다.
④ 나그네의 정서에서 자조나 한탄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소재와 표현을 화자·주인의 상황 및 정서와 연결하여 감상하는 능력을 묻는다.

핵심 개념

시적 상황은 가난한 주인이 나그네에게 묽은 죽을 대접하고 미안해하는 장면이다. 화자는 죽에 비친 하늘빛과 구름, 청산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주인의 미안함을 덜어 주고 고마움을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난한 형편에도 죽을 내어 준 주인의 대접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다.
② O — 화자가 주인에게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라고 하고 묽은 죽에 비친 풍경을 좋다고 말하는 데서, 주인을 배려하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③ X —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는 묽은 죽에 비친 자연의 모습이지, 주인의 유유자적한 삶을 뜻하지 않는다. '주인의 유유자적한 삶을 의미한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묽은 죽에 비친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 주인의 미안함을 덜어 주는 소재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화자는 가난한 대접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죽에 비친 자연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여유와 해학을 보인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하늘'과 '구름'이라는 자연 소재만 보고 유유자적한 삶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이 소재들은 주인의 생활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묽은 죽의 모습을 재치 있게 바꾸어 말하는 데 쓰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소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작품 속 상황과 연결해 판단한다. 특정 인물의 삶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한 선지는 그 인물과 소재를 직접 이어 주는 시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묽은 죽에 비친 자연 풍경은 주인의 유유자적함이 아니라 화자의 배려와 해학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매클루언의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체[media]'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나 수단이다. 이에 따르면 젓가락이 부딪치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달하는 공기, 또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 전달하는 귀도 일종의 매체이다. 곧 매체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체학자인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11~1980)은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 작용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옷과 집, 과학과 철학, 회화와 음악 등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며,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다.

① 언어적 기호(記號)와 비언어적 기호(記號) 둘 다 매체다.

②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③ 매체는 매개체이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다.

④ 의미 전달에 활용된다면 기차도 매체라 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매클루언이 매체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인식·관계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는 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적 매체 개념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이다. 매클루언의 관점에서 매체는 말과 글 같은 언어적 기호뿐 아니라 옷·집·회화·음악처럼 간접적으로 의미 전달에 활용되는 비언어적 대상도 포함하며, 인간의 사고와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조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직접 의미를 담는 말과 글뿐 아니라 옷·집·회화·음악 등 비언어적 대상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적 기호와 비언어적 기호를 모두 매체로 보는 것은 매클루언의 관점과 일치한다.
② O — 글은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와 인식 체계,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다. 매클루언은 매체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인간의 사고와 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선지가 그의 관점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④ O — 매클루언은 직접 의미를 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의미 전달에 활용되는 대상까지 매체로 본다. 그러므로 기차가 이동이나 속도, 공간 관계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면 매체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글 앞부분의 사전적 정의인 '물체나 수단'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매클루언의 관점을 묻고 있으며, 그는 바로 그러한 피상적 이해를 비판하고 매체를 의사소통의 필수 조건이자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보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의 관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일반적 정의와 그 학자가 새롭게 강조한 주장을 구분한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사고·인식·사회 질서를 변화시킨다'가 판단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매클루언의 매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사회를 바꾸는 메시지이자 조건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乙抱遣去如
(* '□'은 '卯'로 판독하는 경우도 있음.)

① 『균여전(均如傳)』에 실려 있다.
② 민요적 성격이 강하다.
③ 첫 번째 구의 밑줄 친 '隱'은 음독(音讀)한다.
④ 형식상 <헌화가>와 같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향가 「서동요」의 수록 문헌, 성격, 향찰 표기, 형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동요」는 서동이 선화 공주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고 전하는 4구체 향가이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향찰은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표기 방식으로, '隱'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보조사 '은'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균여전(均如傳)』에 실려 있다'이다. 「서동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으며, 『균여전』에는 균여의 「보현십원가」가 전한다.

② O
아이들이 부르며 널리 퍼뜨린 노래로 전해지고 내용도 민간의 소문 형식을 띠므로 민요적 성격이 강하다.

③ O
첫 구의 '隱'은 한자의 소리 '은'을 빌려 우리말 보조사 '은'을 적은 것이므로 음독한다.

④ O
「서동요」와 「헌화가」는 모두 네 구절로 이루어진 4구체 향가이므로 형식이 같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균여전』도 향가를 전하는 문헌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균여전』은 균여의 「보현십원가」, 『삼국유사』는 「서동요」와 「헌화가」 등의 수록 문헌이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수록 문헌과 형식을 먼저 짝지은 뒤, 향찰의 문법 형태소가 한자의 소리를 빌린 표기인지 확인한다. 「서동요」는 『삼국유사』·민요적 성격·4구체, '隱'은 음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서동요는 『삼국유사』의 민요적 4구체 향가이고, 『균여전』의 향가는 「보현십원가」이다.

NoteBase

문 14.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였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중략)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중략)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중략)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오?" "전라선이에요." (중략)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중략)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내다보았다. 백화가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중략)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중략)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① 영달은 백화와의 동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② 정 씨 본인은 뜨내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백화는 영달의 마음을 가늠하기 힘들어 불안해 한다.

NoteBase

④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말과 행동, 서술자의 직접 진술을 근거로 인물의 심리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영달은 다친 백화를 업고 부축하며, 백화와 헤어질 때 먹을 것을 건넨다.
정 씨는 삼포로 돌아가 정착하려 하며 영달에게도 백화와 함께 가서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 보라고 권한다.
백화는 두 남자가 속삭이는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다가, 이별할 때 눈물을 보이고 영달에게 본명을 밝힌다.

핵심 개념

인물의 심리는 대사 한 부분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행동, 표정, 서술자의 설명과 앞뒤 상황을 함께 살펴 추론한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침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적용 기준

이 지문에서는 영달의 침묵을 단순한 거부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영달이 백화를 업었을 때 가뿐함을 느끼고, 좋은 여자 같다는 말에 동의하며, 이별할 때 먹을 것을 챙겨 준 행동은 백화를 싫어한다는 해석과 어긋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영달은 백화를 업고도 불편하지 않고 가뿐하다고 느끼며, 백화를 좋은 여자라고 인정하고 헤어질 때 먹을 것도 챙겨 준다. 따라서 '백화와의 동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영달은 백화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끼지만 자신의 처지와 능력 때문에 함께 갈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이다.
② O — 정 씨는 고향인 삼포로 돌아가고 있으며 '말뚝 박구 살게 될지',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라고 말한다. 이는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정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다.
③ O — 백화는 영달과 정 씨가 자신을 두고 속삭이자 그들을 '불안한 듯이' 지켜본다. 두 사람이 자신과 동행할지 알 수 없어 영달의 마음을 가늠하기 힘든 불안이 나타난다.
④ O — 백화는 영달에게 함께 고향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일자리까지 주선하겠다고 한다. 이별할 때 눈물을 보이며 본명인 이점례를 밝히는 행동에서도 영달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아무 말이 없었다', '시무룩해져서'만 보면 영달이 백화와 동행하기 싫어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침묵은 백화에 대한 거부감보다 정착할 능력이 없다는 자괴감과 망설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심리 문제에서는 먼저 심리를 직접 드러내는 서술을 찾고, 이어서 대사와 행동이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한다. 한 장면의 표정이나 침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앞뒤의 반복된 행동까지 종합한다.

암기 포인트

영달의 침묵은 백화에 대한 싫증이 아니라 호감 속의 망설임이고, 백화가 본명을 밝힌 것은 호감과 신뢰의 표시이다.

NoteBase

문 15. 문학 기법 관련 서술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중략)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중략)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중략)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오?" "전라선이에요." (중략)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중략)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내다보았다. 백화가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중략)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중략)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관찰자 시점의 성격을 지녔다.

② 말하기(telling) 기법을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백화의 복잡한 심정이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④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의 여운'을 표현하고 있다.

NoteBas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서술 시점, 말하기와 보여 주기, 역설적 표현, 말줄임표가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말하기(telling)는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직접 요약·설명하는 방식이고, 보여 주기(showing)는 대화와 행동을 장면처럼 제시하여 독자가 상황과 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방식이다.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통해 내면의 진실이나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서술자가 인물 밖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도, 이 대목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관찰자 시점과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
② X — 틀린 표현은 '말하기(telling) 기법'이다. 이 대목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장면으로 제시하는 보여 주기(showing) 기법을 중심으로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O —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는 눈물과 웃음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함께 제시한다. 이 역설적 표현은 이별의 슬픔과 영달 일행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백화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④ O —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처럼 말끝을 흐리는 말줄임표는 망설임과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남겨 여운을 형성한다.

오답 포인트

대화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말하기(telling)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직접 장면화한 것은 보여 주기(showing)이며, 이 장면성이 극적 효과를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자가 인물의 상태를 요약·설명하면 말하기, 대화와 행동을 직접 제시하여 독자가 심리를 추론하게 하면 보여 주기로 판단한다. 또한 서로 반대되는 정서나 표현이 한 장면에 결합되어 깊은 의미를 만들면 역설 여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설명·요약은 말하기, 대화·행동의 장면화는 보여 주기이다. '눈물 속 웃음'은 복합 심정을 드러내는 역설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퓨전 바람은 역사 속의 문화 융합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 ) 식의 변화와 통합이 주를 이뤘다. 즉 남쪽의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식이다. 복도 중심의 서양식 아파트가 이 땅에 와서 거실 중심의 구조로 바뀐 것은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빙 둘러서는 한옥 형태에 적응한 결과다. 한국의 갈비가 바비큐 문화에 '적응'하여 엘에이(LA) 갈비로 거듭난 것도 '귤이 탱자가 되는 식'의 융합 사례들이다.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레 합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① 國粹主義
② 衛正斥邪
③ 嘗糞之徒
④ 橘化爲枳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제시된 '남쪽의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과 일치하는 한자 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귤화위지(橘化爲枳)는 귤이 환경이 다른 곳에서 탱자로 변한다는 뜻으로, 같은 대상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질이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비유한다. 글은 서양식 아파트와 갈비가 한국의 생활 환경에 맞게 변한 문화 융합을 이 성어로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수주의(國粹主義)는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만을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다른 나라나 민족의 것을 배척하는 태도이다. 환경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문화 융합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國粹主義'는 '橘化爲枳'로 고쳐야 한다.
② X — 위정척사(衛正斥邪)는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 문물과 외세를 배척하려는 사상을 가리킨다. 이질적 문화 요소가 생활 환경에 맞게 합쳐지는 현상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 '衛正斥邪'는 '橘化爲枳'로 고쳐야 한다.
③ X — 상분지도(嘗糞之徒)는 부끄러움도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몹시 아첨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환경에 따른 문화의 변화와 융합을 나타내지 않는다. 틀린 표현 '嘗糞之徒'는 '橘化爲枳'로 고쳐야 한다.
④ O — 귤화위지(橘化爲枳)는 '귤이 변하여 탱자가 된다'는 뜻이다. 바로 뒤의 '남쪽의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와 '귤이 탱자가 되는 식'이라는 반복 설명에 정확히 대응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화 융합이라는 화제만 보고 ①의 '자기 문화 중시'나 ②의 '외래문화 배척'을 고르면 글의 핵심인 '적응에 따른 변화'를 놓치게 된다. 빈칸 뒤에서 귤과 탱자의 관계를 직접 풀어 쓴 부분이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직후의 '즉' 이하를 빈칸의 풀이로 본다. 선택지의 한자를 글자 단위로 풀어 본 뒤, '귤(橘)이 변하여(化) 탱자(枳)가 된다(爲)'는 문맥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귤화위지(橘化爲枳)는 '귤이 탱자로 변함', 곧 환경에 따라 성질이 달라짐을 뜻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의 밑줄 친 '자(恣)'와 같은 한자를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라고 불리는 동물을 영국인은 'dog[도그]'라고 부르고, 독일인은 'hund[훈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가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이라고 한다.

① 지자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줄임말이다.
② 그의 방자한 태도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③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④ 지리산은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자의 음이 같더라도 단어의 뜻에 따라 서로 다른 한자가 쓰임을 이해하고, '자의성(恣意性)'의 '자(恣)'와 같은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恣는 '방자하다, 제멋대로 하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이다. '자의성(恣意性)'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특성이며, 여기의 恣는 '방자하다'의 恣와 같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자체'의 밑줄 친 '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自治)'에 쓰인 自이다. 恣가 아니라 自가 올바른 한자이다.
② O — '방자한'은 '방자하다(放恣하다)'에서 온 말이므로 밑줄 친 '자'에 恣를 쓴다. '자의성(恣意性)'의 恣와 같은 한자이다.
③ X — '자세히'의 밑줄 친 '자'는 '자세하다(仔細하다)'에 쓰인 仔이다. 恣가 아니라 仔가 올바른 한자이다.
④ X — '자태'는 '모습이나 맵시'를 뜻하는 '자태(姿態)'이므로 밑줄 친 '자'에 姿를 쓴다. 恣가 아니라 姿가 올바른 한자이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의 밑줄 친 글자는 모두 음이 '자'이지만 한자와 뜻은 다르다. 특히 '자의성'의 恣를 모양이 비슷한 '자태'의 姿와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음만 비교하지 않고 단어 전체의 뜻을 먼저 확인한다. '제멋대로·방자함'의 뜻이면 恣, '스스로'이면 自, '자세함'이면 仔, '모습'이면 姿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자의성(恣意性)의 恣는 방자하다(放恣하다)의 恣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라고 하였다. 시뮬라크르는 '파생 실재'라고도 불리는데,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성, 즉 '하이퍼리얼리티'를 가진다. 이때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시뮬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현대에는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① 시뮬라시옹의 결과물이 시뮬라크르이다.

② 시뮬라크르, 파생 실재, 하이퍼리얼리티는 같은 의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③ 보드리야르는 사진을 보고 이를 재현한 그림의 가치를 인정했다.

④ 플라톤은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회화의 가치를 인정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뮬라크르를 부정적으로 본 플라톤과 이를 독립된 실재로 인정한 보드리야르의 관점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시뮬라크르는 실재를 복제하여 만들어진 파생 실재이고, 시뮬라시옹은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이다.
하이퍼리얼리티는 파생 실재가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니는 사실성을 뜻한다.
플라톤은 회화를 이데아의 복제물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으로 보아 그 가치를 부정하지만, 보드리야르는 현대의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에서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하고, 그 결과 형성된 원본의 복제물을 시뮬라크르라고 설명한다.
② O — 이 글의 문맥에서 시뮬라크르는 파생 실재이고, 하이퍼리얼리티는 그것이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지닌 사실성이므로 세 용어는 실재의 복제·전환이라는 같은 개념 관계를 나타낸다.
③ O —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재현한 것은 복제된 대상을 또 복제한 시뮬라크르에 해당한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의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된다고 보므로 그 가치를 인정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플라톤은 … 회화의 가치를 인정했다'이다. 플라톤은 현실을 이데아의 복제물로, 회화를 그 현실의 재복제로 보았으므로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렸더라도 회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라는 표현 때문에 플라톤도 사실적인 회화를 높이 평가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판단 기준은 재현의 정밀함이 아니라 이데아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복제물인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제물의 가치를 묻는 선지에서는 학자의 평가 방향을 먼저 구분한다. 플라톤은 이데아에서 멀어진 복제를 부정하고, 보드리야르는 현대의 시뮬라크르를 독립된 또 하나의 실재로 인정한다.

암기 포인트

플라톤은 복제를 부정하고,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독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물을 돈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물이 매우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잔칫집에 초대받아 갈 때 선물로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가져가곤 했다. 물이 곧 돈이나 과일 같은 값진 선물이었던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비가 올 때 나무를 타고 새끼줄을 따라 흘러들어온 빗물을 항아리에 모은 후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여름철에는 그 항아리 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개구리를 거기에 넣어 기르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나) 느린 존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 듯하다.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낙오된다. 그러나 단기 승부의 순발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 월드컵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급속하게 추진했던 고속철도가 예정보다 2년이나 늦게 개통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경쟁력은 오히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실을 다지는 깊이에서 나온다.

① (가)와 (나) 모두 우선 사실적 독해를 기본으로 한다.

② (가)의 두 문단은 '주지-부연'의 관계로 읽어야 한다.

③ (가)는 이해 위주의 읽기로 충분할 수 있다.

④ (나)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기에 공감은 피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의 성격과 읽기 목적에 따라 사실적·이해적·비판적·공감적 읽기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실적 읽기는 글에 명시된 정보와 내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읽기이다. 이해적 읽기는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관계를 종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읽기이다. 비판적 읽기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는 읽기이고, 공감적 읽기는 글쓴이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읽는 방식이다. 비판과 공감은 서로 배제되는 독법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와 (나)의 명시적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는 다른 독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단계이므로 적절하다.
② O — (가)의 첫 문단은 우리나라에서 물을 소중히 여겼다는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둘째 문단은 제주도의 빗물 수집과 보관 사례로 이를 구체화하므로 두 문단을 '주지-부연' 관계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가)는 물을 귀하게 여긴 제주도의 생활 모습을 설명하는 정보 중심의 글이므로, 중심 내용과 세부 사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해 위주의 읽기로 충분할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기에 공감은 피해야 한다'이다. (나)의 주장과 사례가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느린 존재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나)는 비판적으로 읽되 글쓴이의 관점에 공감하며 읽을 수도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비판'과 '공감'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독법처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주장 및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글에 드러난 사실과 구조를 파악한 뒤 글의 목적에 맞는 독법을 판단한다. 어떤 선지가 '비판해야 하므로 공감하면 안 된다'처럼 한 독법이 다른 독법을 반드시 배제한다고 단정하면 실제로 두 독법이 병행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실적 읽기는 모든 독해의 바탕이며, 비판적 읽기와 공감적 읽기는 함께 가능하다.

NoteBase

문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은 시조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다.

②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③ 이상의 <날개>는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다.

④ <호질>, <양반전>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국 문학사에서 작가·작품과 문학 갈래 또는 문학사적 흐름의 연결이 정확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조 부흥 운동은 1920년대에 전통 시가인 시조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 한 문학 운동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로 불리던 이야기가 소설로 정착한 작품군이다.
모더니즘 소설은 도시적 감각, 내면 의식, 새로운 서술 기법 등을 중시한 소설이다.
한문 소설은 한문으로 창작된 소설이며, 박지원의 작품에는 당시 사회와 지배층의 모순을 풍자한 작품이 많다.

선지별 해설

① O —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은 시조의 현대적 계승과 보급에 힘쓰며 시조 부흥 운동을 이끈 인물들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구운몽>까지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한 것이다. <춘향전>과 <심청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지만, 김만중의 <구운몽>은 꿈을 통해 현실의 욕망과 깨달음을 다루는 몽자류 고전 소설이다. 따라서 '<춘향전>과 <심청전>은 판소리계 소설이고, <구운몽>은 몽자류 고전 소설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 이상의 <날개>는 인물의 분열된 내면과 도시적 삶을 새로운 서술 방식으로 형상화한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다.
④ O — <호질>과 <양반전>은 박지원이 한문으로 쓴 소설로, 위선적인 지배층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춘향전>과 <심청전>이라는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사이에 <구운몽>을 끼워 넣었다. 세 작품이 모두 고전 소설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세부 갈래까지 같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시대만 보지 않고 작가, 형성 배경, 세부 갈래를 함께 확인한다. 판소리 사설에서 소설로 정착한 작품인지, 꿈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몽자류 소설인지 구분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춘향전>·<심청전>은 판소리계 소설, 김만중의 <구운몽>은 몽자류 고전 소설이다.

NoteBase